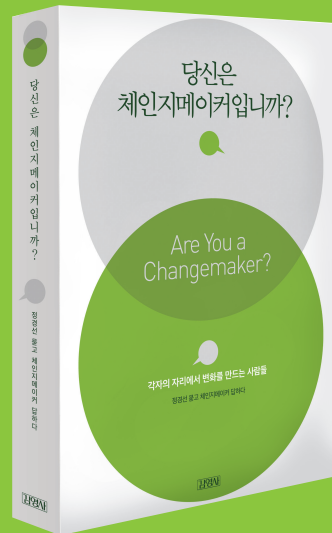


# 당신은 체인지메이커입니까?



정경선 엮음  
376쪽 | 값 14,800원

## “사람들은 나쁜 세상을 원하지 않는다.”

체인지메이커를 돕는 재벌 3세로 화제가 된 체인지메이커 정경선이  
각자의 자리에서 세상을 바꾸는 체인지메이커 20명과 나눈 대화

빈곤, 인종차별, 여성 혐오, 문맹 아동, 장애인 이동권, 공장식 축산, 환경 파괴... 세상은 자세히 들여다볼수록 비극 같지만 각자의 방식으로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사람들이 있다. 누군가는 사회가 외면하던 사람들의 목소리를 듣고, 문맹 아동을 위해 디지털 교과서를 만든다. 누군가는 교통 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입법 활동을 하고, 누군가는 제품의 기획 단계부터 판매까지 보다 많은 이에게 이익을 주는 회사를 지지하며 지향하는 가치를 일과 삶에서 실현하려 한다. 이들 덕분에 누군가의 삶은 극적으로 바뀌고, 나빠지는 것 같던 세

상은 옳은 궤도를 찾아간다.

체인지메이커 스무 명과 직접 인터뷰를 진행하며 자신의 생각을 써내려간 위은이 정경선은 대학생 때부터 사회를 변화시키겠다는 신념을 갖게 됐다. 재벌 3세라는 출신 성분 때문에 소셜 섹터에서 활동하는 것이 쉽지는 않았지만, 그가 사회문제 해결에 힘쓴 지도 벌써 10년이 되었다. 그동안 그는 체인지메이커들이 행복하게 일해야 세상이 조금 더 빠르게 변화한다는 신념으로 2012년부터 체인지메이커들의 활동을 지원하는 회사 루트임팩트를 시작했다. 루트임팩트는 사회 곳곳의 체인지메이커를 발굴하고, 성수동 헤이그라운드를 중심으로 커뮤니티를 형성해 체인지메이커들의 지속 가능한 업무 지원 및 체인지메이커 양성 등에 노력하며 체인지메이커 생태계 조성자의 역할을 하는 곳이다. 때문에 이 책의 인세 수익도 체인지메이커를 돕는 일에 쓰일 예정이다.

정경선은 세상에 만연한 사회문제들이 방치되고 악화되기만 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이 책을 엮었다. 그렇기에 일반인들에게는 생소한 임팩트 투자자, 기업 사회공헌팀 임원부터 주변에서도 쉽게 볼 수 있는 가치소비자와 소셜 섹터 쪽 진로를 희망하는 대학생까지 최대한 다양한 분야의 체인지메이커들을 선정해 인터뷰를 진행했다. 나이도, 성별도, 직업도 모두 다른 체인지메이커들의 이야기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 충분한 고민과 노력이 있다면 누구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책은 삶에서 지향하는 가치를 실현하지 못해 괴리감을 느끼는 수많은 사람에게 나도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믿음과 희망을 줄 수 있을 것이다.

## **소셜벤처 창업자, 프로보노 서비스에서 가치소비자까지 새로운 세상을 빛어내는 체인지메이커들이 말하는 일과 삶**

### **일로써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들**

사회적 동물인 인간에게 대다수와 다른 선택을 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더군다나 그 선택이 전례가 많지 않은 새로운 선택이라면 어려움은 몇 배로 커진다. 세상을 바꾸겠다는 신념으로 체인지메이킹 활동을 하는 체인지메이커들은 모두 이 어려움과 대면하며 살아가지만 부담과 무게를 더 많이 짊어지는 이들이 있다. 더 큰 변화를 위해 기수 역할을 하며 먼저 길을 나서는 창업자들이다.

밀레니얼 세대를 위한 미디어 닷페이스(DotFace)의 조소담 대표, 디지털 교과서를 만드는 에누마(Enuma)의 이수인 대표, 한국의 대표적인 강연 콘텐츠로 자리매김한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의 제작자인 구범준 대표, 현장에서 교육혁신을 일으키고 있는 미래교실네트워크의 정찬필 사무총장, 한국의 국제화를 주제로 사업을 전개해나가는 크레이그 라투슈(Craig LaTouche) 등은 체인지메이커로서 새로운 영역을 개척해나가고 있다. 이들은 이 책을 통해 지금까지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 자신들의 일이 어떻게 세상을 바꾸고 있는지 등을 가감 없이 이야기했다.

### **체인지메이커를 위한 체인지메이커**

군중 속에 혼자 춤을 추는 누군가가 있다. 사람들은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 그때 최초 추종자라 불리는 사람

2~3명이 함께 춤을 춘다. 그제야 나머지 사람들도 춤을 추기 시작한다. 먼저 시작하는 사람을 받쳐주는 몇 명이 함께하면 결국 모든 사람이 움직인다는 원칙은 사회 변화를 만드는 일에도 적용된다. 남들이 가지 않은 길을 용감하게 간 사람을 지지하며 필요한 도움을 주는 것이 바로 최초 추종자인 조력자들의 역할이다. 체인지메이커들이 일을 할 수 있게끔 기부와 투자를 하고, 이들의 사업이 지속 가능할 수 있도록 조언과 지원을 아끼지 않는 것이다.

한국 사회의 기부 문화를 바꾸는 데 기여한 재단법인 해피빈의 권혁일 이사장, 임팩트 투자자인 브라이언 트렐스타드(Brian Trelstad)와 사샤 디터(Sasha Dichter), 소셜벤처의 탄생과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돕는 임팩트스퀘어의 김민수 이사, 친환경 아웃도어 브랜드 파타고니아에서 사회공헌에 앞장서는 릭 리지웨이(Rick Ridgeway), 체인지메이커들의 활동에 필요한 법률 자문부터 입법 활동까지 하는 임성택 변호사 등은 체인지메이커들에게 필요한 일을 직접 찾아서 하고 있다. 이들의 이야기를 읽다 보면, 평범한 이들도 모두가 춤을 추게 하는 최초 추종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 삶에서 세상의 변화를 만드는 체인지메이커

세상을 바꾸는 체인지메이킹 활동은 창업과 투자 또는 기부로만 가능한 것이 아니다. 소셜 섹터 관련 학과에서 공부를 하거나 동물권을 존중해 동물 실험을 하지 않는 회사의 제품을 구매하는 식의 가치소비를 할 수도 있다. SNS를 통해 특정 사회문제에 대한 목소리를 내거나 주말을 이용해 평소 관심 있던 곳에서 봉사활동을 할 수도 있다. 세상을 바꾸는 일은 소셜 섹터 밖에서도 가능하다.

소셜 섹터 관련 진로를 희망하는 학생들,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한 패티가 담긴 패션 소품을 판매하는 마리몬드 등의 씨앗이 된 동아리 인액터스(Enactus)의 활동가들, 영리 기업에서 소셜 섹터로 이직한 소셜 섹터 종사자, 가치소비라는 문화를 소개한 닥터 브로너스(Dr. Bronner's)의 수입사 대표인 성 그레이스, 자투리 시간을 활용해 체인지메이킹 활동을 하는 사람들 등은 대다수의 사람도 얼마든지 세상을 더 좋은 곳으로 바꿀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 추천의 말

앞으로 만들어낼 변화가 더 기대되는 정경선 대표가 체인지메이커들의 이야기를 듣고, 자신의 생각을 더한 책이 나온다는 소식은 나를 설레게 했다. 인터뷰에 응한 체인지메이커와 체인지메이커를 돕고 지원하는 이들 모두 소중한 사람이다. 이들의 고민을 들어주고, 어떻게 하면 함께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지 말하는 이 책 또한 매우 중요하다. 이 책이 홀로 있는 것 같아 외롭던 체인지메이커들의 외로움을 덜어주고, 체인지메이커와 무관하다 생각했던 사람들이 체인지메이커들을 응원하게 하고, 더 나아가 많은 사람을 체인지메이커 생태계로 끌어들이는 계기가 되기 바란다. **\_이재웅, 현 쏘카 대표이사**

루트임팩트는 한국 사회 구성원들이 전환기를 명확하게 인식하고 이에 따른 기회를 포착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 소개된 한국과 다른 여러 나라의 체인지메이커들은 모두를 위한 선(善)을 증진하는 데서 삶의 만족을 찾고, 역사적인 전환기에 누구보다 빠르게 적용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이

책을 통해 무엇이 체인지메이커를 만드는지, 여기 나온 체인지메이커들이 걸어온 길은 어떤 길이었는지 알게 될 겁니다. 저는 이들의 모습이 여러분의 향후 선택에 큰 도움이 되리라 믿습니다.

빌 드레이튼(Bill Drayton), 아쇼카 CEO

### 역은이 정경선

체인지메이커를 돕는 재벌 3세로 화제가 된 체인지메이커. 대학에서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아산나눔재단 창립 멤버 및 NPO 사업팀장으로 사회에 첫발을 내디뎠다. 헌신적으로 사회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체인지메이커들이 행복하게 일해야 사회가 조금 더 빠르게 변화한다는 신념으로 2012년 비영리 사단법인 루트임팩트를, 2014년 임팩트 투자사 HGI를 시작했다. 현재 미국에서 MBA 과정을 밟음과 동시에 루트임팩트의 CIO(Chief Imagination Officer)이자 HGI의 대표로 일하며 국내외의 다양한 파트너들과 함께 임팩트 생태계 확장의 기회를 모색하고 있다.

### 루트임팩트

체인지메이커들의 성공적인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진 회사. 루트임팩트는 체인지메이커들이 보다 안정적인 일, 삶, 배움의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코워킹 커뮤니티 헤이그라운드, 코리빙 커뮤니티 디웰하우스, 모바일 플랫폼 마디 등을 통해 성수동을 중심으로 체인지메이커 커뮤니티를 조성하고 있다. 또한 미래의 체인지메이커를 위한 임팩트 베이스 캠프, 임팩트커리어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임팩트 생태계 조성자의 역할을 자처한다. 성수동을 넘어 국내외에서 체인지메이킹의 씨앗이 자라나길 희망하고 있다.

### 인터뷰이 소개

**조소담** 2016년 밀레니얼 세대를 위한 미디어 닷페이스를 창업했다. 다음 해, 여성과 소수의 인권에 관한 이야기를 풀어낸 다큐멘터리로 누적 조회 수 1억 뷰를 달성했다. 랜덤채팅 어플로 하는 미성년자 성매수를 조명한 'H.I.M. Here I am', 낙태죄 폐지를 이야기하는 '세탁소의 여자들' 등을 통해 사회문제를 심도 있게 전한다. 포브스 선정 '유리천장을 깬 아시아 여성 20인', '아시아의 영향력 있는 30세 이하 리더'로 뽑혔다. 이야기를 나누면 새로운 상식이 만들어진다고 생각하고, 세상에 선한 영향을 끼치는 미디어를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수인** 미대 졸업 후 게임 디자이너로 경력을 쌓은 뒤 엔씨소프트의 기획조정실에서 일했다. 2012년 미국에서 남편과 함께 장애가 있는 아동을 위한 학습 앱을 만드는 회사 에누마를 창업했다. 2014년에 출시한 수학교육 앱 '토도수학'은 앱 스토어의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현재까지 약 100억 원의 외부 투자를 유치했다. 2017년 세계적인 사회혁신가를 선발하는 아쇼카(Ashoka)의 펠로우로 선정되었다.

**구범준** 1997년 CBS에 PD로 입사했다. 이후 CBS TV의 편성 전략 기획을 담당했고, <아름다운 세상>, <이장호 감독의 누군가를 만나다>, <김창옥의 만사형통> 등 인기 프로그램을 연출했다. 2011년 5월 <세상을 바꾸는 시

간 15분)을 기획하고 제작하기 시작했다. 2018년 10월 현재까지 180여 회의 강연회를 열고, 1000여 편의 강연을 제작하며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을 대한민국 대표 강연 콘텐츠 브랜드로 성장시켰다. 2017년 4월 주식회사 세상을바꾸는시간15분을 설립해 회사의 대표 PD이자 대표이사로 일하고 있다.

**정찬필** 22년 동안 KBS PD로 재직했지만 2013년 다큐 시리즈 <21세기 교육혁명>을 제작하며 접한 거꾸로교실 실험이 계기가 되어 2016년 (사)미래교실네트워크 사무총장으로 변신했다. 2016년 아쇼카 펠로우에 선정된 것을 시작으로 구글임팩트챌린지(Google Impact Challenge) 우수, 핀란드 헨드레드(HundrED) 세계100대 교육혁신 사례, OECD 글로벌혁신학교 선정, 엠아이티 솔브 글로벌챌린지(MIT Solve Global Challenge) 결선 진출 등을 통해 국제적으로도 성과를 인정받고 있다.

**크레이그 라투슈** 아일랜드에서 태어나 한국에서 국제협력학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다양한 국가와 자기 자신으로의 쉽 없는 여행과 성찰 끝에, '한국의 국제화(Internationalization)'와 관련한 사회문제를 사업으로 해결하고자 파인더(Findr)라는 소셜벤처를 창업해 잡파인더(JobFindr) 등의 서비스를 시작했다. 창업 전까지는 한국과 일본 등의 국제기구에서 일했고, 현재 사회적 자산을 창출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권혁일** 제어계측공학과를 졸업하고, 삼성SDS의 사내벤처 프로젝트로 이해진 의장과 함께 네이버를 창업했다. 창업 멤버로 6년을 보낸 후 네이버 재팬을 맡아 운영했다. 2003년 네이버가 공익을 위한 플랫폼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네이버 사회공헌팀을 조직하고, 해피빈 서비스를 만들었다. 2009년 공익에 무관심한 다수를 움직이게 하기 위해 네이버 해피빈재단으로 독립했다. 현재 공익 분야의 공감과 연대가 큰 힘을 발휘할 것이라 믿고 대한민국의 공익을 든든히 뒷받침하고 있다.

**브라이언 트렐스타드** 대학 졸업 후 소셜 섹터에서 일을 시작했지만, 경영대학원 졸업 후에는 세계적 컨설팅 회사 맥킨지 컨설턴트로 일하며 영리 섹터와 소셜 섹터를 넘나드는 커리어를 밟아왔다. 이후 애큐먼의 임팩트 투자 담당 CIO(Chief Investment Officer, 최고투자책임자)로 일하며 아시아 및 사하라 이남 지역에서 건강, 물, 에너지, 농업 등의 문제를 푸는 소셜벤처에 5500만 불 이상의 투자를 집행했다. 아스펜 기업가네트워크(Aspen Network of Development Entrepreneurs, ANDE)와 임팩트 관리 소프트웨어인 펄스(Pulse), 그리고 임팩트 측정 도구를 모아 놓은 라이브러리 IRIS(Impact Reporting and Investment Standards)를 함께 만들었다. 현재 브릿지스 펀드 매니지먼트(Bridges Fund Management)의 미국 파트너로 일하고 있다.

**사샤 딘터** 혁신적인 방법으로 전 세계의 빈곤 퇴치를 위해 힘쓰는 애큐먼의 CIO(Chief Innovation Officer, 최고혁신책임자). 2007년 애큐먼에 입사하기 전까지 컨설팅 회사 부즈알렌해밀턴(Booz Allen Hamilton)과 IBM, GE머니 등에서 전략컨설팅과 사회공헌을 담당했다. 현재는 애큐먼에서 임팩트 측정, 리더십, 사회혁신 교육 플랫폼 플러스애큐먼 등을 담당하고 있다. 세상에 다양한 사회혁신 아이디어를 알리기 위해 수많은 곳에서 강연을 하며 오피니언 리더로도 활동한다.

**김민수** 경제학과 재학 중 고분자 플라스틱 제조 회사 웹스(waps)에서 2년간 근무했다. 대학 졸업 직전인 2010년, 사회적 기업 동아리를 만든 도현명 대표, 조영진 이사와 함께 임팩트스퀘어를 창업했다. 2011년부터 본격적으로 임팩트 비즈니스 컨설팅을 제공하고, 2014년 임팩트 평가 전문 서비스를 시작하여 현재까지 국내에서 가장 많은 케이스(약 120개)를 다루고 있다. 2015년부터 소셜벤처 액셀러레이션(acceleration)에 집중하며 국내외 다양한 임팩트 투자자, 소셜벤처와 협력하고 있다.

**릭 리지웨이** 산악인이자 모험가로, K2를 최초로 오른 미국인. 최고의 제품을 만들되 불필요한 환경 피해를 유발하지 않으며, 기업 활동을 통해 환경 위기에 대한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파타고니아 본사의 퍼블릭 인게이지먼트 담당 임원(Vice President of Public Engagement)이다. 2018년 현재 나이키, 유니클로, 자라 등 240여 개의 패션 브랜드를 동참시킨 SAC(Sustainable Apparel Coalition, 지속 가능한 의류 연합)를 조직하고 있다.

**임성택** 법대를 졸업하고, 5년간 NGO단체에서 간사 또는 사무국장으로 일했다. 남들보다 조금 늦게 사법고시에 합격했지만 국내 굴지의 로펌에서 변호사 생활을 시작했다. 사회적 약자를 위한 공익활동에 모범이 되는 새로운 로펌을 만들기 위해 뜻을 함께하는 동료들과 범무법인 지평을 설립했다. 당시 로펌 중 처음으로 공익위원회를 만들었고 공익활동을 소속 변호사의 의무로 설정했다. 프로보노 활동을 통해 장애인, 사회복지, 임팩트 금융 등의 분야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으며 현재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전예진** 연세대학교 언더우드국제대학에서 사회정의리더십(Justice and Civil Leadership)을 공부하고 있다. 고등학교 재학 중 소셜벤처와 협동조합을 접하며 지속 가능한 사회 시스템에 관심을 가졌고, 대학교 재학 중 임팩트커리어를 통해 루트임팩트 마케팅팀 인턴으로 근무했다. 이후 교내 사회혁신센터에서 주최한 '사회혁신 컨설팅 대회'에 참가하여 우승했고, 현재 체인지메이킹에 대한 열정을 이어나가고 있다.

**이유진** 연세대학교 언더우드국제대학에서 지속개발협력학(Sustainable Development and Cooperation)을 공부하고 있다. 고등학생 때부터 사회문제에 관심을 가졌고, 대학 진학 후에는 전공 공부와 동아리 활동을 통해 사회문제 해결의 사업적 접근 방법에 대한 흥미를 키웠다. 2017년 교내 프로그램인 유아이시 연구 프로젝트(UIC Research Project) 대회에 참여해 사회적 기업의 임팩트 측정 방법 연구를 진행했다. 현재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체인지메이커의 모습을 계속해서 찾고 있다.

**이고은** 대학 생활을 하던 2009년, 지역사회문제를 사업으로 해결하는 학생 조직인 인액터스 활동을 하며 대학생들이 지역사회와 공감하는 건강한 리더십을 배울 수 있다는 가치에 매료되었다. 이 가치를 확산하는 데 기여하고자 인액터스 사무국을 만들고 교육개발 매니저로 활동했다. 2012년부터 현재까지 사무국장으로 사무국을 운영하며, 인액터스를 가치 있는 사회적 기업이 나올 수 있는 조직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박은호** 개인과 사회의 행복 연구라는 꿈을 이루기 위해 심리학과에 입학했다. 배낭여행을 간 인도에서 빈민들의 삶을 목격한 뒤 사회문제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이후 2016년 서울대학교 인액터스에서 광고를 부착한 리

어카로 옥외 광고 플랫폼을 만들어 폐지 수거 노인들의 경제적 여건을 개선하는 ‘클립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현재 세상을 변화시키는 글로벌 사회적 기업가를 꿈꾸고 있다.

**남경숙** 대학에서 경영정보학 및 경제학을 공부하던 중 인액티스 활동을 통해 학교 인근 지역 상인들이 겪는 문제 해결을 위한 ‘새싹’ 프로젝트를 약 2년간 운영했다. 이후 여러 프로젝트에 관심을 가지며 소셜 섹터에서 커리어를 시작하는 것에 대해 고민하게 됐다. 2016년 루트임팩트의 임팩트 베이스캠프 2기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소셜 섹터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되어 루트임팩트 인턴으로 일했다. 현재는 평소 관심사인 동물권을 더 자세히 공부하기 위해 워킹 홀리데이를 떠나 뉴질랜드에서 생활하고 있다.

**김형진** 경영학을 공부하고 회계사가 되어 2008년부터 삼일회계법인과 GS EPS에서 실무를 경험하며 재무와 회계 감각을 길렀다. 일과는 별개로 종교활동과 사이드 프로젝트를 통해 ‘따뜻하고 사람다운 세상’이라는 미션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던 중, 회계사 커리어가 사회적 선의를 실현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2016년 루트임팩트에 합류했다. 루트임팩트의 재무와 인사 등 경영관리를 총괄하며, 보이지 않는 임팩트를 어떻게 평가하고 관리할 것인지 고민하고 있다.

**성 그레이스** 사회학을 전공하고, 13년간 주한미국대사관 상무부에서 상무담당위원으로 일하며 소비재와 유통 산업을 담당했다. 2004년 닥터 브로너스 본사와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그들의 독특한 문화와 철학에 반하게 되어 2013년부터 닥터 브로너스 공식 수입사인 엠아이인터내셔널의 마케팅 이사로 일하며, 닥터 브로너스 본사가 추구하는 환경보호 및 사회공헌 활동이 한국에도 자리 잡을 수 있도록 CSR 활동에 집중하고 있다. 또한 수입사에 임케이를 설립해 친환경 세제 및 생리대를 국내에 소개하며 가치소비 확산에 힘쓰고 있다.

**원종건** 대학에서 언론정보학을 공부한 뒤 다음, 카카오, 아산나눔재단 등에서 인턴으로 일했다. 이후 이베이코리아 소셜 임팩트 담당 매니저로 첫 사회생활을 시작했다. 커뮤니케이션 장애 인식 개선을 위한 프로젝트팀 ‘설리번’을 운영하며 병어리장갑을 ‘엄지장갑’으로 바꾸어 부르지는 ‘엄지장갑 프로젝트’를 진행하기도 했다. 현재 회사에서 소방공무원 지원사업을 담당하며 더 좋은 일을 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 고군분투 중이다.

**이범규** 초기투자 벤처캐피털 본엔젤스(BonAngels)에서 심사역으로 일한다. 유럽으로 교환학생을 가서 기획한 ‘한 사람에게 한 문장씩 받아 이어 쓰는 소설’ 프로젝트를 계기로 다양한 프로젝트 활동과 창업을 하게 됐다. 2012년 일회용 종이컵 문제를 근절하고자 소셜벤처 ‘브링유어컵’을 창업했고, 2013년 괴짜 프로젝트 발굴단 ‘고직스(GoGeeks)’를 만들었다. 2014년 자원봉사단체인 ‘어떤 버스’를 시작해 5년째 이어오고 있으며, 매해 여름 팟캐스트 ‘무서운 이야기’를 진행한다.

채인지메이커들의 인터뷰가 필요한 경우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이 책과 저자에 대한 문의가 있으시면 편집부로 연락주시시오.

★ 김영사 연락처 조은혜 02)3668-3256 | silversunc@gimmyoung.com

★ 홍보실 최정은 실장 02)3668-3207 | rachoi@gimmyoung.com